

1

2

3

4

5

6

## 7 비문학 독해의 발달

8 고등학교 시기

9 sample version

10

11

12 글읽는소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 2 상황 모델의 구성 ; 지식과 추론이 이해하도록 한 결과

3

4 아래 글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B형 문제의 지문입니다. 고등학교  
5 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수학하기에 필요한 국어 능력이 어느 정  
6 도인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8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9

10 먼저 첫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1 ‘정신적 사건’을 읽었을 때 우리 마음은 ‘정신적’이라는 단어의 의미<sup>1)</sup>를 생각합니  
12 다. 그리고 단어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정신적’과 연관된 단어<sup>2)</sup>도 연상할  
13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반의어로서 ‘물질적’, ‘육체적’  
14 이라는 개념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15 ‘정신적 사건’을 읽은 다음 ‘물질적 사건’을 읽는 순간 이전에 ‘정신적 사건’을 통  
16 해 연상했던 바에 따라 반의어 관계인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의 대립적 구  
17 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전에 ‘물질적’과 함께 ‘육체적’을 연상했다면 정신  
18 적-물질적 구도에 의해 ‘육체적’은 마음속에서 밀어냅니다. 이것은 처음에 ‘정신적  
19 사건’을 읽고 ‘물질적’이라는 개념을 떠올림에 따라 마음속에 ‘정신적’과 더불어  
20 ‘물질적’, ‘육체적’ 등이 어지럽게 활성화되어있는 혼돈스러운 상태가 점차 명확한  
21 구조(대립, 대칭)로 구체화하여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육체적’인 것을  
22 생각하고 있으면 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불필  
23 요하거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억제함으로써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독해력에서  
24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25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정신적-물질적>에서의 정신과  
26 <정신적-육체적>의 정신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

1) 정신 :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2) 유사어, 반의어, 상/하위 개념어 또는 기타

1 능력. 또는 그런 작용'이나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 또는 이념이나 사상'인  
 2 반면 후자는 전자와 비슷하면서도 신체와 결합해 있다고 믿는 영혼과 같은 것으로  
 3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글에서 단어의 맥락상 의미는 사전적 지식으로 고정되  
 4 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에 좌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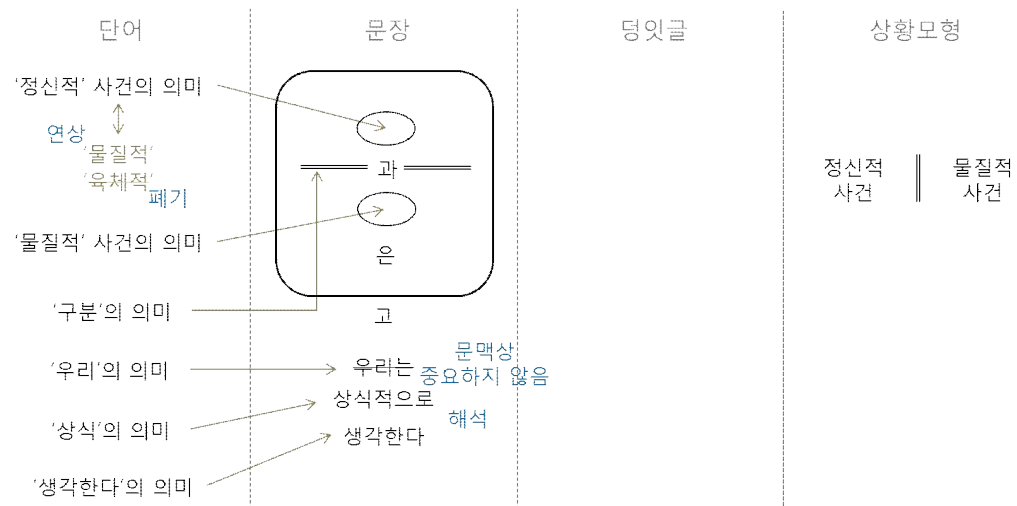
5 이렇게 독자는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이 대립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  
 6 과 대립 구조를 통해 각각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구분된다'는 단  
 7 어를 읽으면서 정신적과 물질적이라는 두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배타적인 의미를  
 8 떠올리며 대립 구조의 가운데에 마치 구분선을 긋듯이 상황모형을 그립니다. '정신  
 9 적'이라는 개념과 '물질적'이라는 개념이 서로 대칭적이라는 점을 주지함으로써 어  
 10 느 정도 상황모형을 구성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장 읽기가 끝나면 상  
 11 황모델이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12  
 13  
 14

15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6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17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18 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위 문장을 읽으면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의 대립적 구조에 그대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덮으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마음속에서 밀어냈던 ‘육체적’이란 단어가 아예 명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의 이해가 틀린 것이었을까요? 또는 저자가 글을 잘못 쓴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설명해 드린 대로 읽는 것이 과정상 옳습니다. 첫 문장만을 읽었을 때 설명해드린 대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두 번째 문장을 읽고서 물질적-육체적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필자인 제가 제가 두 번째 문장이 무엇인지 알고서도 왜 굳이 첫 문장에서 ‘정신적’을 통해 유의어로서 ‘물질적’과 ‘육체적’이 떠오르지만 ‘물질적 사건’을 읽으며 ‘육체적’은 밀어낸다고 말했을까요? 그건 독해 과정의 역동적인 면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첫 문장에서 ‘정신적’이라는 단어를 보고 물질적, 육체적 개념을 모두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순간순간 마음에 개념을 연상하고 삭제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신속하고도 다양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통해 그렇게 활발한 과정을 통해 글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문장이 만든 대립적인 틀을 두 번째 문장이 모양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저자가 육체적 사건이나 물질적 사건의 의미를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문장은 또 다른 틀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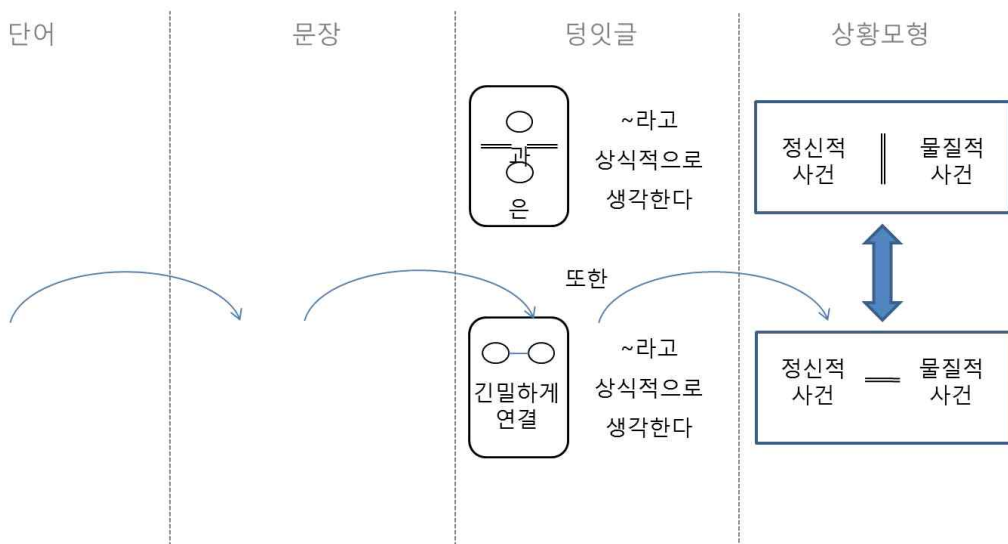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첫 두 문장으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한 상황모델을 구성했더니 이번에는 바로 그와는 반대로 두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정신적 사건 - 육체적 사건(물질적 사건)

1 그러면 위와 같은 구조가 새로 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마음속의 상을 갱  
 2 신하여 위와 같이 새로운 상황모델로 교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3 문장의 표현,  
 4  
 5 ...보는 것 또한...상식이다  
 6  
 7 는 이전과 같이 우리의 '상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또한' 이라는 단어로써 이전  
 8 과 병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밝혀 줍니다. 즉,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 사이의 관  
 9 계, 즉 구조를 만드는 표현입니다. 상황모델은 어떤 의미에서는 글의 주요 내용의  
 10 축소판이므로 글의 구조는 상황모델에 반영됩니다.  
 11 첫 번째, 두 번째 문장과 같이 단어→문장으로 이해를 하고 이전 두 문장과 하나  
 12 의 덩잇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마음속에는 단지 두 개의 내용이 남는 것이 아니  
 13 라 각각의 내용을 비교하여 상반된 두 내용, 즉 두 요소의 관계를 구분한 것과 연  
 14 결한 것을 전제로 하는 상황모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5  
 16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  
 17 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18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1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것은 바로 위의 상  
2 황모델이 동시에 가진 구분과 연결이라는 구조적 성질입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 상  
3 황모델이 모양을 갖추면 저자의 글은 더 이상 단어나 문장이라는 표면적인 의미보  
4 다 단어와 문장이 구성한 상황모델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는 계속해서  
5 단어, 문장 등 표현과 표면적 의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모델이라는 심리적  
6 상에 집중해서 읽는 것이 글을 깊게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며 분명하게 기억하  
7 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마지막 문장에서는 두 상반된 견해는 서로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9 그러므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는 것이 낫  
10 다거나 연결하는 것이 낫다고 하여 둘 중 하나를 지지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습  
11 니다. 아니면 각자의 견해를 세밀히 짚어보는 내용으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12 글은 제3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13  
14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15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  
16 도한다.

17  
18 구분과 연결의 대립적 상황모델이 그대로 이어지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19 구분을 기초로 하면서도 관련되어 있다는 이론을 등장시켰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  
20 법’을 언급함으로써 대립구조 상황모델과 관련된 내용을 ‘나열’할 것임을 시사하고  
21 있습니다.

22 첫 단락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성 요소로 하며 둘 사이가 서로  
23 상반된 관계를 갖고 있는 내부구조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모델을 최종적으로 구성  
24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문장을 통해 순차적으로 정보를 추가하면서 상황모델은 계속  
25 확장되었습니다. 글에서 상황모델이 완성이 된 듯이 보여도 이후에 확장/상세/추  
26 가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처음 글의 내용을 파악해서 마음속  
27 에 구성한 상황모델을 지속적으로 참고하여 독해에 활용함으로써 글 이해하는 사

1 고향의 중심이 됩니다.

2

3

4

5

6

7 ※ 참고하기 : 바람직한 독해와 그렇지 못한 독해

8

9 다음 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sup>3)</sup>

10

11 먹으로 난초를 그린 묵란화는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12 그림으로, 여느 사군자화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  
13 다. 묵란화는 중국 북송 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14 문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문인들에게 시, 서예, 그림은 나눌 수 없는 하나였다. 이  
15 런 인식은 묵란화에도 이어져 난초를 칠 때는 글씨의 획을 그을 때와 같은 붓놀림  
16 을 구사했다. 따라서 묵란화는 문인들이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  
17 었다.

18 추사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석란(石蘭)>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19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화이다. 화면에 공간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는 잎새들은  
20 가지런하면서도 완만한 곡선을 따라 늘어져 있으며, 꽃은 소담하고 정갈하게 피어  
21 있다. 도톰한 잎과 마른 잎, 둔중한 바위와 부드러운 잎의 대비가 돋보인다. 난 잎  
22 의 조심스러운 선들에서는 단아한 품격을, 잎들 사이로 핀 꽃에서는 고상한 품위  
23 를, 묵직한 바위에서는 돈후한 인품을 느낄 수 있으며 당시 문인들의 공통적 이상  
24 이 드러난다.

25 평탄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김정희의 예술 세계는 49세부터 장기간의 유배 생활  
26 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 글씨는 맑고 단아한 서풍에서 추사체로 알려진 자

---

3) 2015학년도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1 유분방한 서체로 바뀌었고, 그림도 부드럽고 우아한 화풍에서 쓸쓸하고 처연한 느  
2 낄을 주는 화풍으로 바뀌어 갔다.

3 생을 마감하기 일 년 전인 69세 때 그렸다고 추정되는 <부작란도(不作蘭圖)>는  
4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 준다. 담묵의 거친 갈필\*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된  
5 몇 가닥의 잎은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오른쪽으로 뒤틀리듯 구부러져 있  
6 다. 그중 유독 하나만 위로 솟구쳐 올라 허공을 가르지만, 그 잎 역시 부는 바람에  
7 속절없이 꺾여 있다. 그 잎과 평행한 꽃대 하나, 바람에 맞서며 한 송이 꽃을 피웠  
8 다. 바람에 꺾이고, 맞서는 난초 꽃대와 꽃송이에서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  
9 해진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김정  
10 희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묵란화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 문인 공통의  
11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  
12 출했음을 알 수 있다.

13 묵란화에는 종종 심정을 적어 두기도 했다. 김정희도 <부작란도>에 ‘우연히 그린  
14 그림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적어 두었다. 여기서 우연히 얻은 참모습을 자신이  
15 처한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때 우연이란 요행이 아니라 오랜  
16 기간 훈련된 감성이 어느 한 순간의 계기에 의해 표출된 필연적인 우연이라고 해  
17 야 할 것이다.

18

19 위 글은 묵란화가 문인의 품성(교양과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추사  
20 김정희의 <석란>이라는 묵란화 역시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  
21 다. 그래서 <석란>에 관한 설명에서 대상을 묘사한 부분을 읽으면, 그것으로부터  
22 작가인 추사 김정희의 성품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묘사로부터 김정희의  
23 성품을 추측할 수 있다면 바로 다음 문장에서 "...단아한 품격, ...고상한 품위, ...  
24 돈후한 인품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을 바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25 즉, 서두에서 묵란화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설명한 바가 마음속에 틀을 잡고 있는  
26 상태에서 다음 문장을 읽는다면 <석란>을 보며 추사의 인품을 느낄 수 있다는 설  
27 명을 보기 전에 이미 "가지런하면서도 완만한 곡선..., 소담하고 정갈..., 둔중한 바



1 위와 부드러운 잎" 등을 보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  
3 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글이 그다지 어  
4 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수준을 높여서 고등학교 이후의 성공을 가져다 줄 독  
5 해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이 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  
6 은 분명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  
7 이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독해력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8 령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9 앞에서 '인과추론은 글을 읽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이 강한 응집성을 구성하게  
10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응집성을 구성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독해력이  
11 좋은 사람입니다. 독해력이 좋은 사람은 바로 앞 단락에서 설명한 것처럼 서두에서  
12 분명한 상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다음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묵란화가 문인의 품성  
13 을 나타낸다는 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석란>의 경우 이런 저런 묘사가 그에 걸맞  
14 는 김정희의 품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5 그런데 김정희가 장기간의 유배생활을 거친 이후의 작품인 <부작란도>는 <석란>  
16 과는 다른 화풍을 보여줍니다. 이때 글의 화제를 김정희의 작품세계로 생각하고 읽  
17 은 독자라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것입니다.

18

19 김정희의 작품 세계

20 1) 석란에 드러난 김정희의 품성

21 2) 부작란도에 드러난 김정희의 품성

22

23 이런 독자는 김정희의 작품의 하위항목으로 석란, 부작란도를 넣어 둡니다. 그래  
24 서 마음속에는 색인(index)이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읽은 사람은 두 작  
25 품에서 왜 김정희의 다른 성품을 볼 수 있었는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26 알 수 있었다 해도 더 깊이있는 지식을 접할 때 설명하는 내용의 초점이나 핵심을  
27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서두에서 밝힌 바를 잘 읽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목란화에는 작가의 품성이 담겨 있다

1) 석란의 ~한 묘사는 김정희의 ~한 품성을 나타낸다

2) 부작란도의 ~한 묘사는 김정희의 ~한 품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읽는 사람은 서두를 읽고 마음속에 구성한 상으로 인해 '김정희'보다 작가의 품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석란>에 관한 설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묘사에 어울리는 품성을 떠올리고 어떤 품성인지를 직접 언급할때 이를 강하게 끌어안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부작란도>에 관한 설명을 읽을 때 미숙한 독자는 <부작란도>는 이렇구나 하고 그대로 넘어가지만, 능숙한 독자는 각각의 작품에서 다른 품성이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점에 주목하면 그것의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인과추론을 하여 '장기간의 유배생활'이 그런 감정을 갖게 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주지합니다. 이것은 글에서 결과를 보고 먼저 언급된 내용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후진추론(backward inference)입니다. 이와 달리 '장기간의 유배생활'을 읽고 바로 그에 맞는감정이 반영되었을 것을 예상하는 전진추론(forward inference)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 바에 따라 글을 이해하면 글 내용의 부분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는 응집성이 강한 간결한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로써 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추가로 심도있는 사고를 하려 할 때에 유용합니다.

1 6. 독해력 문제 상담 사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눈으로 읽기에 문제가 있었던 학생**

16 연령이 몇 살이든지 광의의 독해력은 국어와 독서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  
17 등학생 나이에 세상을 좀 더 알게 되기도 하지만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는 면도 있  
18 습니다. 자신을 과신하거나 세상을 얕보는 일은 좋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런 뼈박한  
19 태도보다는 자신의 가능성을 간과하는 자신감 없는 태도로 세상을 너무 크게 두려  
20 워하고 일찍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가진 학생들을 더 많이 봅니다.

21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부모님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22 잘 내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서 고민을 토로하고  
23 도움을 받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원리  
24 가 아니라 한 학생의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학생에게 어려움을 가져온  
25 것처럼 게임이나 문자 대화, SNS 등에 몰두하는 것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볼 수  
26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문제점을 극복할  
27 수 있도록 용기를 갖고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글을 읽기 힘들다는 한 여학생이 저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질문을 했습  
2 니다. 모의고사성적은 5등급이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두 해가 지났습니다. 그  
3 래서 고등학교와 이후 어떤 생활을 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거의  
4 공부를 하지 않았고, '문자만 하며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  
5 금은 핸드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세여서 그런지 지금  
6 인상은 많이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말을 했습  
7 니다.

8

9 먼저 만나기 전에 저에게 보낸 쪽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

11 문과구요 다른과목은 이번수능을준비하면서 공부를 거의 처음해보는거라 성적이  
12 많이 낮습니다..ㅜㅜ

13 국어는 오늘 6평에서 별의밤가지문같이 정보가 많은 지문은 시간이 매~우 오래걸  
14 리거나 손도못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15 다른 비문학지문들은 문단간의 호응과 흐름을 나름파악하며 읽는데 과학지문은 그  
16 게 안되다보니 읽고나면 머릿속엔 마지막 문단만 남아있어서 문제풀땐 항상 다시  
17 지문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씩 다시읽고 찾아내는식으로 풀니다..

18 문학은 해석자체가 잘 되지않아서 선지를 읽으면서 파악하는데 이것도 선지에 힌  
19 돌려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의 해석으로 문제를 풀구요 ㅜㅜ

20 화작문은 심리적 압박감때문에 집중하여 읽지못하고

21 문제에서 뭘묻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같은지문, 선지, 발문을 몇번이고 다시읽  
22 습니다 시간도 많이 뺏길뿐만아니라 실수도 많이합니다....

23

24 -----

25 제가 이 쪽지를 통해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6

27 첫째 문자, 게임, 서핑이 주는 폐해 - 과도한 사용은 위 학생과 같이 독해력을 떨

1 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  
2 둘째 자녀 또는 학생들이 토로하는 구체적인 어려움  
3 셋째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에서 이 학생은 띄어 읽기를 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추정 - 통사적 해석이 원만하지 못할 것이란 추측.... 읽기에 문제가 있더라도  
4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고 본인조차 알기 어렵기도 하다는 점  
5  
6  
7 문자와 카톡에 매달리는 학생 중에서 이제 그만 손을 놓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8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9 쪽지 내용 외에도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이해한다는 것이 구체  
10 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할지를 알려주었습  
11 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답장을 받았습니다.  
12  
13 학생 :  
14 안녕하세요~  
15 덕분에 너무나 많은걸 알고 깨닫고 배워갔습니다.  
16 글 읽는게 단순히 눈 똑바로뜨고 정신만 똑바로 차려 읽는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  
17 서의 단어 하나하나에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흐름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  
18 다. 또 근본적인 저의 문제점을 알게되어 좌절은커녕 오히려 너무너무 기쁩니다.  
19 단순히 수능이 아니라 저의 생활에있어서 예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좀더 나은 내  
20 가 될 수 있을것같아 정말로 정말로 행복합니다.  
21 조언해주신대로 글을 소리내어 읽고있는데 어제는 시간이 너무 늦어 신문을 3기  
22 사만 보고 잠을 잤고 오늘은 기사21지문(3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23 글의 위쪽을 보며 읽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식하며 글자의 중간을 보면서  
24 읽었습니다.  
25 예전에는 뒷문장도 보여서 소리내어 읽을때 별로 끊김이 없고 억양이나 톤도 자  
26 연스러웠는데 글의 중간을 보면서 읽으니까 경직되고 문장에서 숨도 제멋대로 쉬  
27 고 억양이나 톤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1 아 그리고 선생님께서 기분을 코멘트해달라고 하셨는데 좋고 나쁘고 슬픔의 기분  
2 인지 위와같은 느낌?인지 확실히 알고 싶고 읽는 분량도 적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3 ! 끝으로 어제 좋은 시간 마련해주셔서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4

5 답장 :

6 쪽지 보내줘서 고맙네요.

7 곧바로 열심히 잘 했어요. 분량은 충분한 것 같아요. 만약 3장 정도를 못하는 상  
8 황이 되더라도 매일 조금이라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9 읽는 것의 목적과 기대 효과는 여러가지지만 당사자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소리  
10 내어 읽다가 가끔씩 눈으로 읽으려 했을 때 눈이 자연스럽게 글을 따라 오른쪽으  
11 로 가고 내용이 편안하게 머리 속에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늘 글을 조급하지 않게  
12 읽으려 하고 마치 체질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해보세요.

13 그리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 읽기가 편해집니다. 그건 조금 있다  
14 가 이야기할테니 며칠 후에 본인이 어떻게 읽고 있는지, 혹시 변화가 있는지를 말  
15 해줘요 그때 봐서 지식을 받아들이는 읽기를 할 지 안할지 판단해 볼게요.

16 열심히 하세요

17

18 학생:

19 아 그리고 선생님 제가 글을 읽을때 집중을 잘 못하고 명을 자주 때려서 영어처  
20 럼 끊어서 읽고 있는데 안좋은 방법인가요?? 쪽~ 자연스럽게 읽기보단 짧고 굵게  
21 읽습니다. 이래야 판짓을 덜 하고 집중도 덜 하게 되서요..ㅜㅜ

22

23 답 :

24 그냥 할 수 있는대로 읽어요.

25

26 문장을 읽는다는 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27

- 1 1. 글자를 본다
- 2 2. 글자의 소리값을 떠올린다
- 3 3. 몇 글자의 소리값을 모아서 단어와 연결시킨다
- 4 4. 단어의 의미를 떠올린다
- 5 5. 단어의 통사적 의미(격)와 상황에 따른 의미를 떠올린다
- 6 6. 단어의 적절한 의미(통사론적, 화용론적)를 파악하고 문장 의미를 구성한다.

7

8 위 학생이 어려워하는 것은 위의 모든 것 중에서 특히 1과 2에 문제가 있습니다.  
 9 그래서 3이후의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단어의 모든 글자를 소리값으로 변환시킨  
 10 다음 어떤 단어인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어 중에서 몇 글자만을 보고 어떤 단  
 11 어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글자를 봐야  
 12 하고, 본 글자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13 학생은 글자를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는 단어라 하더라도 말로 들은 경  
 14 험은 많되(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부족하겠지만) 글로 만난 경험은 부족합니다. 그  
 15 래서 글을 보면서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도 늦지만 어떤 단어인지 제대로 보지 않  
 16 고 있습니다. (악순환이지요.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인식하는 능력도 부족해집니다)

17 문자로 대화하는 주제가 얼마나 다양할까요? 그런 주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18 표현은 얼마나 다양할까요? 즉, 문자와 카톡으로 쓰고 읽는 표현은 얼마나 다양할  
 19 까요? 충분한 독서와 충분한 학습에서 접하는 단어와 표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  
 20 니다. 그래서 아는 단어의 양이 적고, 아는 단어를 경험한 빈도수도 적습니다. 그  
 21 래서 아는 단어라도 눈으로 읽는 것이 더디고(매우 미세한 차이지만) 그 단어를 읽  
 22 어낸 다음 의미를 생각하기도 더딥니다.

23 이런 미세한 더딤이 문장의 의미를 마음속에 구성하는 데 실패하게 만듭니다. 참  
 24 ‘미세한’ 문제이지만 그만큼 남들은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나 컴퓨터 게  
 25 임에 시간을 바친 학생들은 심각한 부족함을 몸과 마음에 지니게 됩니다. 만약 “당  
 26 신의 숨쉬기는 당신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  
 27 요.

1 예전에 눈동자의 움직임 기록하는 실험을 할 때 글을 매우 잘 읽는 사람에 비  
2 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눈동자가 문장 위쪽에 있는 경향을 보았습니다. 이 학생  
3 역시 그렇습니다. 한정된 표현을 주고받는 문자 대화에서는 이것이 어떤 표현인가  
4 를 파악할 표현의 목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학생이 흔히  
5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 목록이 5천~1만이라면(수치는 근거가 없습니다. 대략) 문자  
6 대화에 몰입하는 학생은 그보다 적은 단어와 표현 목록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다  
7 면 늘 사용하던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문자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  
8 이 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머릿속을 뒤져야 할 필요가 적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9 쓰던 표현이니깐요. 1위는 ㅋㅋㅋ이겠지요. ㅋㅋㅋ과 같은 표현은 슬쩍 눈으로 지  
10 나가기만 하면 알아볼 수 있으니 제대로 시선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뻘~한’  
11 표현들도 그렇겠습니. 그러다보니 귀로 들어서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도 눈으  
12 로 읽어서는 이해를 빨리 할 수 없는 것이지요.

13 그래서 시선이 정확히 글줄에 오도록 조정해야 했고,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한편으  
14 로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떨어져 있어서 위축된 마음으로 글을 대하게 되었  
15 으므로 자신이 읽을 것을 자신이 결정하고 가급적 흥미를 느끼는 것을 읽는 것이  
16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신문을 펼쳐서 마음이 가는 기사를 읽기 시작하고 그  
17 다음으로 마음이 끌리는 기사를 읽고...이렇게 기사를 모두 읽으라 했습니다. 그리  
18 고 글자를 제대로 보고 글자의 소리값을 불러내는 작업을 하도록 기사를 소리내서  
19 읽으라 했습니다.

20 그랬더니 마치 부작용처럼 오히려 읽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의 쪽지를 보시  
21 면 아시겠지만 띄어쓰기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쪽지보다는 나아져서 그것이  
22 신경쓰고 쓴 것인지 아니면 읽기 연습의 결과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  
23 무튼 띄어읽기, 숨, 톤 등 문장을 매끄럽게 읽는 흐름을 갖지 못하는 것에서 보듯  
24 제대로 보면서 제대로 읽는 것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착실하고 대단한  
25 열의가 있고 심성이 착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예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26 이 학생에게 준 방법은 당사자의 문제에 맞춘 것이고 당사자가 이해하고 받아들  
27 인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일 것이라 판단하셔서 자녀에게 신문을 보라, 읽으라 하



- 1 시면 원하는 결과(반응)를 얻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2
- 3
- 4 학생 :
- 5 오늘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 신문은 읽지 못하였고
- 6 자습실에서 비문학 인문지문 8개 기술지문 1개를 읽었습니다.
- 7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글과 글 사이의 빈 공간을 보는 습관은 어느 정도 나아졌습니
- 8 다.
- 9 문장의 주어를 까먹는다거나 내가 무슨 글을 읽고 있었는지 잊어버리는 현상은
- 10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글을 읽는데 있어서 빈번합니다..ㅏㅏ
- 11 글을 쭉 읽지 못하고 꼭 전에 문장을 간략하게 다시 읽어봅니다.
- 12 그래도 집중하며 읽으려고 노력하니 다시 보는 횟수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 13 자습실에서 읽느라 눈으로만 읽었는데 소리 내어 읽는게 더 읽기에 수월하고 이해
- 14 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 15
- 16 인문지문이 잘 읽혀서 욕심내어 기술지문을 읽어봤는데..
- 17 기술지문을 읽는데 있어선 예전과 똑같습니다..
- 18 기술지문은 읽지 말고 인문지문이나 경제사회뉴스만 읽는 것이 좋을까요??
- 19
- 20 답 :
- 21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이 불과 사흘동안의 변화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계속 변화
- 22 가 있을 것이고 일단은 빨리 변하는 것부터 좋아지지만 점점 더 늦게 변하는 것들
- 23 이 서서히 변하는 일이 일어날꺼예요. 그러니 두어 주 후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날
- 24 들이 오겠지요. 하지만 그때도 계속해야 합니다.
- 25
- 26 글을 읽다가 되돌아가서 다시 읽거나 되돌아가야 하는 필요성(기억 못하는)이 있는
- 27 건 보통 사람들에게 15%정도가 있는데 매 문장마다 그러는 것처럼 평균보다 높은

1 비올로 되돌아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나아  
2 지겠지요.  
3  
4 소리를 내어 읽으면 사실은 읽는데 방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글자를 소리값으  
5 로 바꾸는 것이 원할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는게 더 수월하고 이해가 잘 되  
6 는 것입니다. 한참 더 읽으면 소리내지 않고 읽는 것이 더 이해에 수월해집니다.  
7  
8 기술지문을 시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인문지문보다는 더덜 꺼예요.  
9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읽은 경험이 적어서 추론이 잘 되지 않을겁니다.  
10  
11 우선은 편하게 읽어지는 것을 계속 읽으세요. 너무 도전적인 지문을 읽으려 하지  
12 말고. 급하면 안됩니다. 충분히 읽어야 합니다. 잠깐 시험 나가자고 벼락치기 연습  
13 하는 것이 아니니 어제와 같은 수준의 읽기라도 똑같이 계속해 나가세요.  
14  
15 학생 :  
16 선생님~ 요즘 고1 학평풀기와 신문읽기를 병행하고있습니다!  
17 사실 신문읽기는 요즘들어 꾸준히 하질 못했어요..ㅠㅠ  
18 대신 (종이에 인쇄된) 학습칼럼읽기는 매일 꾸준히 1~2시간정도 읽고 있습니다!  
19  
20 요즘 바뀐게 있다면요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라기보단  
21 예전에 비해 저의 부족함을 저 스스로 자각하고  
22 글을 읽을 때 긴장하며 읽습니다.  
23 전엔 글을 읽어도 머릿속이 하얗서 진짜 말그대로 눈 운동만하고  
24 내가 무슨 글을 읽는지, 심지어 읽은 문장의 주어도 기억이 나질 않았는데  
25 요즘은 머릿속이 비어있다고 느끼면 읽은 내용이라던가 글자의 의미를  
26 떠올릴려고 노력합니다!  
27 덕분에 많이는 아니지만 읽는 속도도 조금은 빨라졌습니다.

1  
2 사소하지만 예전과 다른 저의 모습이 신기합니다 !  
3 변화하는것을 직접 느끼니 더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ㅎㅎ  
4  
5 그리고 저번에 시읽는 방법에 대한 실감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6 시의 본질까진 저 스스로 깨우치진 못했어도 읽는 방법을 아니  
7 너무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8 그래서 요즘은 따로 ebs교재에서 시부분만 풀고있습니다!!재밌어요!  
9  
10 예전엔 글 읽는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해본적은 없습니다.  
11 가끔 내가 난독증이있나보다...라고만생각했지  
12 살면서 글읽는것을 통해 내게 플러스요인이나 마이너스 요인은 된다고 생각하지  
13 않았습니다.  
14 그런데 글을 올바른 방법으로 읽어보니 시작한진 얼마 되지않았지만  
15 글을 통해 제가 느끼는 바, 깨우치는 바, 얻어가는 바가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16 정말로 신~기합니다. 특히 시가..너무너무신기하고 재밌습니다 ㅎㅎㅎㅎㅎㅎ  
17 늘 쪽지 끝에 쓰지만....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18  
19 학생 :  
20 안그래도 요즘 기출 풀고 있어요~ㅎㅎ  
21  
22 6월 모평때 왜 그렇게 못봤나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23 여러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24 시간이 제일 부담이 많이 되던거 같아요~  
25 그래서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글읽기'만 빠르게하고  
26 문제로 바로 넘어가고..문제풀 때 헤메고..  
27 또 참 이상한게..전 공부를 못하면서도 공부에 대한 부담감은 많았어요..

1 학생때 시험기간에 늘 과민성대장염에 시달리곤 했어요.  
2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먹고 고생이 많았어요.  
3 시험지를 받으면 눈을 어디다 뒹야 하는지 모르겠고  
4 글을 읽어도 쓰여져있는 글씨만 읽지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고..ㅜㅜ  
5  
6 근데 근래에 저의 문제점을 깨우치고 바뀌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니까  
7 저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게 되고 관찰하게 됐어요.  
8 그 결과 일단은 차~분히 차분히 대응하는게 답이라고 생각했고  
9 기출 풀때 차분히 푸니까 전엔 그냥 지나쳤을 법한것도 제대로 읽게 되더라구요.  
10  
11 별거 아니지만 제겐 큰 깨달음이었어요!! ㅎㅎ  
12  
13 학생 :  
14 예전보다 아주 많이 나아졌어요~  
15 물론 기출도 보던 거 계속 보고 익숙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16 그래도 예전처럼 글자만 맹목적으로 읽기보단  
17 글의 주제가 뭔지, 이 글의 초점이 뭔지 생각하며 읽어요~  
18 그렇게 하니까 비문학 지문이 훨씬 수월하게 읽히더라구요!  
19  
20 그래도 가끔 글자에 정신 집중이 안되고 읽히지 않을 때가 있는데  
21 그럴 땐 글자 위에 펜을 올려놓고 글씨를 가린 다음  
22 읽을 차례가 되면 펜을 옮기면서 읽어요.  
23 그러면 눈이 글자 위로 집중을 할 수 있으니 그나마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더라구  
24 요!  
25  
26 위 학생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를 알려주었을 때 열심히  
27 했습니다. 알려준 대로 열심히 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

- 1 엇을 더 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계속 지켜보면서 지속해야
- 2 할 것과 달리 해야 할 것을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조금씩 변화를 느끼면 매우 기
- 3 빠하면서 그 변화를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하면
- 4 할수록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 5